세월을 타지 않는 예수님의 연쇄사건

(딤후2:14~19)

14.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월을 타지 않는 예수님의 연쇄사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세월을 타지 않는 예수님의 연쇄사건'
여러분, 사건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건이라는 말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나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만한 뜻밖의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역사로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을 말하지요.
근데 왜 역사로서 기록이 됩니까?
사전의 정의대로라면 주목을 받을만한 일, 주목을 받되 나 개인이나 몇몇 사람, 어느 자그마한 단체의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는 일이 바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일어날 당시 사람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쏠리고,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담겼던 일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겨졌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들이 하나둘씩 떠나버리고, 이제 그

사건은 역사 속의 사건, 과거에 속한 일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지금 현재 잊을 수가 없지요, 현재 대한민국의 마음이 쏟아져 들어가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빠졌고,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합병이나 8.15 해방, 식민지합병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8.15 해방도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과거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잊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만큼 커다란 일인 사건들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세월을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기록 속에만 남아있지, 지금 현재의 사람들의 살아있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8.15해방이 아무리 기뻐도 식민지합병이 아무리 암울한 사건이라도 이제는 기억과 기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연쇄사건입니다.
연쇄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만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연쇄적으로 주님에게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심지어 미래에 일어날 재림까지도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돼버린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은 언제나 현재의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의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이 쏟아져 들어가야 될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뒤 30년경에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현재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사도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디모데에게 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뒤에 태어난 어거스틴에게도 현재의 사건이었고, 1000년 뒤에 태어난 루터와 캘빈에게도 현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연쇄사건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현재의 사건입니다.
현재의 사건이란 지금 마음을 그쪽으로 쏟아 부어서 마음이 담겨져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교회의 마음이.
지금 대한민국의 마음이 세월호 사건에 빠져있는 것처럼, 교회의 마음이 예수님의 연쇄사건에 빠져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연쇄사건에 빠지지 않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만은 과거의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나 기록 속에서 남아있는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기억을 통하여 현재의 사건으로 내 마음이 담아져야 됩니다.
전 세계 10억 개신교회의 마음이 담아져야 됩니다.
이게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잘못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훌륭한 인간애를 보여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기리는 일, 이런 걸 모두 다 떠나서, 한 마디로 세월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총체적인 안타까움의 표현이 뭡니까?
세월호를 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수학여행 간다고 세월호를 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의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세월호가 선장이며 선원이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와 오버랩이 돼가지고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두드러진 이단이 영지주의였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들만의 구원의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파와 흡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선장이 모는 배가 세월호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세월호를 타지 말았어야 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너희보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이다'
그러니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죽음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세월호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우리한테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세월호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월호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를 타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세월호를 타고 가다가는 그렇게 멸망할 것을, 그들의 값진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장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유가족들에게 우리들에게 거기서 죽은 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절대 세월호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호를 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모든 일들이 다 세월을 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잊히는 것들이고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됩니다, 세월을 타고 있는 일들인데.
세월을 타고 있는 일들, 시간이 지나면 살아있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들에 매번마다 우리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마음을 거기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에 몸을 실은 것처럼 우리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월을 타는 사건들에 우리 마음을 태워 시간이 지나다보면 반드시 바다에 빠지는, 지옥에 빠지는 멸망의 시간이 기다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세월을 타지 않는 사건에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를 타지 말고, 세월을 타지 않는 배에 우리 마음을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역사상 일어난 모든 일들과 사건 중에서 오직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연쇄사건들만이 세월을 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의 죽음이다'
지금 세월호 배에 빠져서 우리의 가족이 죽고 우리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사건은 '네가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인정과 긍정과 수용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사건은 끊임없이 내 기억 속에서 반복돼서 재현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속에 속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도 승천도 마찬가지에요.
미래의 사건이지만 재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 날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쇄사건의 고리 속에서 과거에 속한 사건들도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재림이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월을 타지 않는 사건에 마음을 실을 때 멸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사실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뽑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절대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또 변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변론과 말다툼이 뭡니까?
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기려고 하는 게 말다툼입니다.
그런데 복음말씀은 말다툼이나 변론, 혹은 설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확정적으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말씀의 내용이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를 따질 수 있는 대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연쇄사건 그 자체입니다.
그 사건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당신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당신은 죽은 겁니다, 지금의 사건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이 예수님의 복음사건은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우리 눈앞에 펼치는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현재의 사건으로 나타나서, 세월호의 사건이 생겼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마음이 세월호 사건 안으로 당겨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죽었다는 말을 전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 속에 마음이 담겨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말다툼이나 변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이천 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 연쇄사건은 하나의 길을 말합니다, 길을.
길을 내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부 이 세상 바다에 빠져서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세월을 타는 세월호 사건들에 마음을 싣고, 오늘은 돈 문제 때문에, 내일은 자식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세월을 타는 문제와 사건들에 마음을 담고 살았습니다, 세월호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월을 타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든 사건인 겁니다.
세월을 타는 사건들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하다보면 경건에서 멀어진다고 말씀하셔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뭡니까?
지금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나게 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말들이 다 헛된 말이고 망령된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말이냐 이거에요.
사건이기 때문에 말다툼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게.
그 사건이 일어나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잘잘못을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어지간히 정신들을 차리고 나니까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에요.
이웃이 죽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사건은 '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보다 앞서는 사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만이 세월을 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에서 멀어진다고 그래요.
날마다 십자가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생활화되지 않으면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경건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원숙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가 이상주의적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르침이나 논리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이론이 들어가면 그 이론이 현실에 부딪쳐서 깨지지 못하고 이론대로 움직이려다보니까 데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졸업하고 현실로 돌아와서 운동권인 채로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본성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세속적이고 더 욕망이 강해지고, 원숙해지고 지혜가 풍성해지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교황도 마찬가지에요.
경건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막을 길은 뭡니까?

날마다 주님의 연쇄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되어서 내게서 살아있는 사건이 되고,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 세상에 빠지려고 하는 경향을 절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괴팍해지고 더 세속적이고, 사소한 일에 매여서 신경질적이 되고 사소한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너그러움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직 세월을 타지 않는 예수님의 연쇄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되는 심령과 인격에게만 경건은 더욱 더 깊어지고 더욱 더 원숙해지는 경험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터가 견고하게 서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불의를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터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연쇄사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굳건한 하나님의 터는 사도바울의 말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부가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떠난다.
우리 마음이 세월을 타는 사건들에 마음을 싣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게 불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건만이 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사건은 지금 당신이 죽은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에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건 바깥에서 그 사건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서울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미국인에게 미국에 사는 교포가 '서울역과 시청 사이에 남대문이 서있는데 그게 국보1호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보1호 남대문이 서울역과 시청 사이에 서있다는 얘기는 변명의 대상도 아니고, 설득의 대상도 아니고 변론과 말다툼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실을 선언하는 것뿐이에요, '남대문이 거기에 있다'
모든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연쇄사건이 진리라고 하는 얘기를 변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철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예수님의 연쇄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시는 이 사건이 왜 진리이냐, 왜 이것을 당신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바울의 말씀도 나왔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학문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설득의 필요, 변명의 필요, 변론과 말다툼의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실어라!'
남대문이 서울역과 시청 사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대문이 그 사이에 서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에게 설득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남대문이 거기 서있다.

이런 것처럼, '예수그리스도께서 너 때문에 죽으셨고, 너 때문에 부활하셨고, 너 때문에 승천하셔서 네가 바로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지금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사건이고 만나게 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연쇄사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말다툼과 변명의 필요가 없고 설득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선언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받아들이게 되어있고, 받아들인 예수님의 연쇄사건을 날마다 세월을 타지 않는 사건으로서 마음을 그 사건에 싣고 견고한 하나님이 세우신 터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고 교인입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세월을 타지 않는 예수님의 연쇄사건에 마음을 두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에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타고 있습니까?
세월을 타는 일들 위에 마음을 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옮겨서 세월을 타지 않는 초 세월호, 무 세월호, 세월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예수님의 연쇄사건에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현재의 사건인 예수님의 연쇄사건에 마음을 둠으로써 세월을 타는 사건들에 내 마음을 실어 멸망의 바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